

# 창조적 우아함 '좌익', 승리 지상주의 '우익'

## 좌익축구 우익축구

니시베 겐지 지음

책 제목만 보면 오해하기 쉬운 책이다. 첨예하게 이분법적으로 좌우니 따지는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 책은 정치적 성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법을 만들어냈다고 한다. 좌익 축구의 원류는 스코틀랜드다.

'승리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접근법 차이가 좌익과 우익 축구를 나눈다. 우익 축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승리 지상주의'이다.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선 수비 후 공격, 전원 수비 전원공격이다. 수비를 철저히 하면서 역습을 노리는 스타일이 우익 축구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조직적인 수비와 역습, 세트 플레이는 우익 진영의 세 가지 무기이다. 반면 좌익 축구의 키워드는 기술이다. 체력보다 기술, 규율보다 자유, 자기희생보다 자기표현을 중시하는 축구다. 영화로 비유하면 우익 축구는 액션영화 같고, 좌익 축구는 연애영화적이다.

이러한 축구 스타일은 클럽 팀이나 국가대표 팀 컬러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정치와 달리 좌파 축구는 FC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같은 메가 클럽이, 우파 축구는 가지지 못한 팀 곁에 있다. 브라질 축구팀은 '조가 보니토'(Joga bonito=아름다운 플레이)와 '징가'(ginga=삼바리듬을 연상시키는 유연한 몸놀림)를 내세우는 좌익 축구를 지향한다. 반면 이탈리아 대표팀은 우익 축구를, 독일 대표팀은 우익과 좌익 축구를 번갈아 선택한다.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성"이라는 펠레의 말에 좌익 축구가 함축돼 있다면, "플레이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기러 가는 거다"라는 이탈리아 엘레니오 에레라 감독은 그 반대 입장을 대변한다.

이 책은 축구공을 드리블 하듯이 축구의 시작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명승부를 펼친 감독과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 감독인 로스 맥코이(왼쪽) 맨체스터 시티 감독과 주제 무리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 저자는 축구에서 섬세한 기술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플레이를 중시하는 파르디올라라는 좌파. 승리를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스타일의 무리뉴는 우파 감독으로 분류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 사진>

준다. 저자는 "좌든 우든 팬을 매료시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힌다. 좌·우로 색깔을 나누는 한국 정치계

에서도 배워야 할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한스미디어·1만40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철학, 기쁨을 길들이다=세계적 철학자이자 종교사학자인 프레데릭 르누아르가 장자, 예수, 몽테뉴, 스피노자, 니체, 베르그송 등 '기쁨을 증점적으로 사유한 사상가'들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그리고 기쁨의 역량이 근거한 자기성취의 길, 지속 가능한 기쁨의 지혜를 제시한다. 저자가 제시하는 기쁨의 지혜는 생의 모든 고뇌까지 포용하면서도 생을 사랑할 수 있는 완전한 기쁨, 순수한 기쁨에 이르는 길에 대한 철학적 대답이자 실천적 해결책이다. <와이즈베리·1만3000원>

▲정조 박제가 박지원 박정희=정조의 북학혁명과 삼정문란을 다룬 책. 박제가·박지원 등과 같은 북학파들의 저서로 논거를 제시하지만 통설보다는 이설로 정조연간 발생한 역사적 사건에 접근한다. 연도별·사건별로 재해석하며 정조의 허상과 실상을 조목조목 파헤쳤다. 최종적으로 북학혁명의 실패가 19세기 조선을 '민란의 시대'로 이끈 삼정문란의 직접적이라고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는 결론을 내린다. <매출복스·1만5000원>

▲안데르센 교수의 밤=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나라이지만 헨리크 입센, 칼 오베르코너우스트로, 온 포세 등 쟁쟁한 문학계의 거목들을 배출한 노르웨이의 거장 다그 솔스타, 그가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된다. '안데르센 교수의 밤'은 이상주의와 환멸, 부러움이 지식인의 내면, 문학과 철학의 가치 등의 주제를 유머러스한 풍자와 냉소적 시선으로 통찰하는 다그 솔스타의 독특한 스타일이 농축되고 집약된 작품이다. <문학동네·1만2800원>

▲트럼프 신드롬=트럼프 돌풍은 미국



대중의 피해의식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오랫동안 대중을 외면하고 자기 이익에만 몰두해온 위선적 엘리트 정치권을 향한 반작용을 지양분으로 삼으며 성장했다. 트럼프 신드롬은 대중의 감정적 분노와 은밀한 욕망을 일깨우고 자극하면서 매우 위험한 곳을 향하고 있다. 책은 트럼프 신드롬의 실체는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추적하며 올바른 대안을 모색하려 한다. <한스미디어·1만3000원>

▲북다, 장애를 말한다=부처는 장애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불교는 장애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불교적 관점에서는 장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알기 쉽게, 때로는 너무 학구적이다 싶을 정도로 파고들기도 했다. 부처 뿐만 아니라 예수, 공자와 마호메트 등 위대한 성현들과 소크라테스, 플라톤, 데카르트, 칸트, 헤겔, 프로이트 등 서양 철학자들이 말한 장애에 대한 이야기들을 두루 다룬다. <행복한책읽기·1만8000원>

## 중국 원나라 문학의 대표 잡극 ... 수정·보완해 펴내

### 서상기

양희석 옮김

이도령과 선충향, 로미오와 줄리엣은 사랑에 빠진 청춘 남녀를 상징한다. 이들은 고전소설 '춘향전'과 셰익스피어의 같은 제목 희곡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장군서'(장생)와 '앵앵' 역시 마찬가지로 인물이다.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원나라 문학을 대표하는 잡극(전통연극) '서상기'(西廂記·작자 왕실보)에 등장한다. 19살 '앵앵'이 입을

그리며 부르는 노래 한 구절을 들려보자. "그는 그리움이 한이 없고/ 나는 마음 이미 통하였는데/ 난새와 봉황이 짝을 잃었음이라/ 그의 곡조 끝나지 않았건만,/ 나의 정은 갈수록 커져 가네..."고 노래한다.

최근 '서상기'를 수정·보완해 22년만에 다시 펴낸 양희석 전남대 중어중문학과 교수(아시아문화연구소 소장)는 "'서상기'는 공연 예술 측면에서 '듣는' 연극의 정수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문학 텍스트 측면에서도 '읽는' 극본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서양의 고

전 연극, 예컨대 그리스 비극이 '특별한' 사람(영웅)들의 '특별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중국 연극은 '평범한'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에 주로 관심을 쏟는다는 사실을 '서상기'는 잘 보여준다"고 말한다.

'서상기'는 당나라때 원진이 쓴 전기(傳奇)작품 '앵앵전'에서 비롯됐다. 이후 관소리와 흡사하게 노래와 말을 섞어 공연하던 예인들이 원본속 귀족 남자의 불

장난과 앵앵의 불행한 결말 대신 사회적 약자인 대중의 취향에 맞춰 행복하게 맺어지는 선남선녀의 '참사랑'으로 새롭게 이야기를 바꿨다고 한다.

역자는 "첨단 데이터베이스를 동원한 결혼시장과 각종 매체를 독점하는 포르노, 그리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자행하는 자살테러와 자기 안에 갇혀 지르는 무차별 살해 등등. 참된 사람이 아니면 무엇으로 치우하겠는가? 우리 시대야말로 '서상기'를 진지하게 읽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독자가 리듬을 실어 문장을 읽는 것만으로도 실제 무대를 보는 듯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진다.

<지식을 만드는 지식·2만20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 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건)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풍광을 전할뿐 아니라 맛과 멋을 선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년 가까이 있습니다.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평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동,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